

대한건축사협회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지난 2004년 5월 7일(금) 14:00~17:30에 있었던 대한건축사협회 역사상 '최초'라는 회원의 자발적인 의견으로 '대한건축사협회 토론준비위원회'의 주관으로 시행된 '대한건축사협회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대하여 토론회 진행상황과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토론회의 목적과 현황

1) 토론회의 목적 : 대한건축사협회의 각 위원회 활동상황의 상호교류 및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실현 방안의 연구와 모색으로 바람직한 위원회의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효율적, 현실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한다.

2) 토론회현황

- 일시 : 2004년 5월 7일 금요일 14:00~17:30
- 장소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강당 (대한건축사협회입주건물 5층에 위치)
- 참석인원 : 약 80여명 (방명록 서명자 48명)
- 배부 : 토론회자료책자 120부
건축백서 '건축개혁 2004' 20부
대한건축사협회팸지 75개

토론회

□ 토론준비상황보고 및 개회선언(14:00 - 14:10)

사회 : 강석후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공연

□ 제1부 : 주제발표 및 토론 [14:10 - 15:45]

좌장 : 조충기 | 법. 제도 개선기획단 위원 : 건축사사무소 간향

좌장 : 오늘 이 토론회에는 역대회장님과 협회 회장님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님들, 감사님들 그리고 80여명이라는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의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사무처관계자들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토론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토론준비위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심과 지원을 표방하셨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100여명의 회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토론회는 학계에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토론준비위원회는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협회의 발전방향이 나온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시도하자는 것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대한건축사협회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고자 한다.

1) 제도적 측면에서 본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발표자 : 장양순 | 홍보·편찬위원회 위원장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토론자 : 박종철 | 법제위원회 위원 : 인터플러스 건축사사무소

발표자 :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행되면서 모든 분야는 더욱 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이에 부응하려면 정관 및 위원회 규약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대외 경쟁력과 협상력을 제고시킴으로서 회원의 권익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 위원 임기와 선출에서 구성인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이 회장임기와 함께 교체됨으로 인하여 활동의 전문성과 연계성이 단절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은 선임 3명, 재임 3명 3연임 3명으로 구성되는 선임 순환방식과 위원장은 3연임을 마친 자가 된다.

축적된 노하우나 대외적 활동의 위상을 위하여 전문위원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회와 이사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위원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무임소이

사(담당 위원회가 없는 이사)와 구분하여 적용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정관 개정 전이라도 위원회간의 활동상황 교류와 업무협조 목적상 정례적인 위원장 통합회의가 필요하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평가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 회장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한 활동을 위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야별로 전문가들 모임과 그 특정 분야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위원장 겸임 이사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자 : 최근 몇 년간의 법제도변화에 따라 협회의 결속력과 영향력이 날로 약해지면서, 협회는 현 시대의 상황과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고, 이제 협회도 우리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평가단의 신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는 분명히 평가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만, '특정평가단'을 두어 위원회를 활동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 회원들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위원장과 이사의 통합'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의 활동사항과 방향을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충분히 소화하여, 협회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지지하나, 위원회의 활동이 자칫 이사의 영향이라 종속될 가능성이 있음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의 활동을 이사회가 제대로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의 임기/선출/전문위원'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와 병행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회원 데이터

뱅크' 운영의 도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과 같이하여 '위원회와 이사회는 동등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는 조직기구의 상하관계를 논하지는 것이 아니고, 협회를 위하고, 회원을 위하는 차원에서 우리협회 스스로가 서로 견제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협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회원들과 위원회의 공론이 이사회에서 가볍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임원들은 회원의/회원회에 의한/회원을 위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협회 일에 전력을 다하고, 회원들은 협회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정서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협회가 곧 우리요, 우리가 곧 협회이기 때문이다.

발표자 : 토론자가 지적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발표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단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단적인 예로서 매월 열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가 4~5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시 얘기하면 같하는 8,9명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한 1,2명을 숙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사와 위원회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10여 년 전까지 만해도 이사가 위원장직을 맡았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정관을 '정관이 정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로서 보하며, 그 이사는 당해 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을 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바꾼다면 문제해결이 되리라 본다. '위원회의 활동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본 발표자가 얘기한 위원회 임기연장과 연임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와 이사회는 동등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조직적 내에서 위원회가 이사회에 산하에 있지만, 위원회의 활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정관개정이 아니더라도, 우선 이사회에 결의를 통해 위원장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이 각 위원회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게 될 것이고, 각 위원회의 정례화 된 '연합회의'도 필요하다. 회의 때마다 각 위원회의 활동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오리엔테이션 한다면, 여러 분야의 위원회를 골고루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협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M/T를 가지고 그 비용은 협회가 해주길 바란다.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입위원의 교육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후의 회의 진행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다.

2) 대한건축사협회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향후 방안

발표자 : 김향년 | 협회발전위원회 위원 : 주, 예창 건축사사무소

토론자 : 민규암 | 국제위원회 위원 : 토마 건축사사무소

발표자 : 우리 협회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다. 20여개의 위원회와 방대한 인원구성이 되어 있으나 과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그렇지 못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체계적이지 못한 난립된 위원회, 실효성과 정보부재, 전문성과 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중복된 위원 임명, 정책 대안제시 기능 미흡, 소극적인 활동, 문제의식 결여, 결정사항과 집행의 비능률 비합리, 사무처 본연의 업무마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과거부터의 타성이며 현재에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위원회 인적구성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명감과 자기희생에 의한 봉사정신이 전혀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 세력안배, 학연배려

등의 관행적인 위원 구성이라 하겠다.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집행부와 회원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개인적 명예 등을 추구함으로 보여지며, 지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위원회 조직의 문제로는 참여의지의 결여로 인하여 활동의 지속성, 회의의 연계성, 임무의 분담에 의한 의견의 취합 과정 등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흐름의 단절로 인하여 비효율을 반복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물의 의무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간 1~2회 소집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

집행부의 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이 온갖 이유로 인하여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며, 경우에 따라서는 허무할 정도로 무시당하는 일도 있다. 활동에 대한 위상확립과 강인한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정리하면,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 인선을 비롯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활동보고서의 작성 등 구체적인 성과물을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며,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는 함께 토의하고 발전시켜 정책에 반영토록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토론자 : 위원회 활동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제위원회만을 보자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적자원도 훌륭하고, 위원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며, 보고서/리포터도 협회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제위원회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짧은 기간이나마 법제도개선기획단 활동을 통해서 협회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각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금번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히 존재하고, 잘 운영되는 위원회도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 따른 위원회의 통폐합의 필요성도 느끼며,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는 새로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현재 우리 협회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고, 이제는 뭔가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위원회간의 정보공유가 보다 잘될 때, 열정을 가진 많은 회원과 위원들의 응집된 힘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어 전달될 때, 전체 건축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법제도개선기획단에서 논의한 수많은 개혁안들에 대해서 이제는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협회에서 제공해야 하며, 오늘의 이러한 논의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국건축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협회의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 : 위원회 상호간의 교류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 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 소관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이 없다. 위원장간의 직접적인 대화로 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방적으로 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위원회간의 불화가 될 수도 있다. 위원회 상호간의 교류문제와 의사소통에 대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3) 대한건축사협회 직능성 발휘를 통한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발표자 : 김석환 | 건축위원회 위원 : 터. 울 건축사사무소

토론자 : 조원용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 주. 건축사사무소 한양건축

발표자 :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라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건축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되고, 회원 각자가 갖고 있는 자부심과 잠재능력을 건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 활로를 열어가는 것이 협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현재 협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집행부와 회원간의 유대부

족을 들 수 있으며, 협회의 위상 약화와 대외 활동력 저하로 인하여 회원간의 반목은 커져가고 있다.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개선 방안으로서 협회의 직능성제고와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협회의 조직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 직능성 제고를 위한 협회 운영조직 개선으로 건축사가 전문가로서 인간과 건축을 성찰하고, 건축적 이상과 시대환경이 요청하는 새로운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 창조하는 모습을 견지해 나가는 동안, 사회에 비춰지는 바람직한 건축사의상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봉사하는 위원회의 활동상 정립으로 전문가 단체에 걸맞은 자료 확보와 관리 등으로 대외 서비스 강화를 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꾸어가고 싶을 것이다. 건축사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 사람들로 구성된 협회 활동이 우리 삶의 모습에 영향을 끼친다면, 인생을 아름답게 지나가기 위해서라도 '건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되는 협회가 모두의 명예가 지켜지도록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이다.

토론자 : 현재 협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협회와 회원간의 유대가 부족하다는 것과 협회의 위상약화와 대외활동력 저하, 그리고 커가는 회원들 간의 반목을 들 수 있다. 이는 위원회 중심의 활동과 '명예건축사' 제도/건축전문기자 양성, 그리고 특검제 폐지와 병행하여 행위자 처벌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첫째, 사회적 헌안 참여/정부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전문능력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기여 등으로 협회 직능성제고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둘째, 회장 직선제 도입/위원회의 이사회 참여 등으로 협회 운영조직을 개선하고, 셋째, 자발적 무보수운동/회의방식 개선 등으로 봉사하는 위원회 활동상을 정립하고, 넷째, 자료실 확보 및 관리/연구소설립 등으로 전문가 단체에 걸맞은 연구 성과물 정기 발표 등을 통해 지적 인프라 구축 및 실질적 수익 사업의 저변 조성이 되도록 한다.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실천방안으로 왜곡된 언론정보 수정 등 사회참여를 위한 지지기반을 조성하고, 건축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건축전문기자를 활용한 대 언론 활동 및 대국민 홍보/교육을 하며, 타전문가 집단과의 교류를 통한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0년간 배출된 건축사 수가 전체 건축사의 2/3에 이른다. 대부분이 3,40대 젊은층일 텐데, 우리 협회는 이들의 미래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였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협회는 꿈을 가진 젊은 건축사들을 협회 내 활동에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왕성한 활동성을 가진 이들이 모인 위원회연합(가칭)을 통하여서만이 과도기적 상황에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4) 청년건축사가 활약할 수 있는 위원회 구축을 위하여

발표자 : 홍명식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 삼주 건축사사무소

토론자 : 백민석 | 협회발전위원회 위원 : 주. 건축사사무소 비에이엔케이

발표자 : 국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도 필연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각종 위원회에 건축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변화의 시대에 맞는 자기 자신의 개발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문화의 주체세력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방향의 제시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서 서울에 편중된 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역 회원들과 연계시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층이 차별화되지 않는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대적, 지역적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러 계층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 계층의 회원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켜 시대의 흐름에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실행과제로서 결과물의 신속한 창출과 이들을 통한 ON LINE상의 협회 홍보 활동이며, 지역간의 교류를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활동의 범위 확대와 창업 및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요창출을 위해 연구되어야 하며, 건축물은 공공적 문화의 산물로서 인식받기 위한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토론자 : 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위원들을 포함하는 구성과 의식 있는 3,40대 건축사 발굴에 대한 선행 작업이 요구되고, 과연 어떻게 그들을 만나서 협회에 대한 설명과 협회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를 반성해야 하며, 많은 3,40대 청년건축사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이 그들 중에서 의식 있고, 의지 있는 분들을 포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회 실행과제에 대해 ON LINE상의 협회PR 활동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협회 홈페이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건축사와 일반인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소수들에 의한 인프라 구축은 무언의 다수에 의해 협회 홈페이지를 소외시킬 수 있다.

협회 가입을 꺼리는 청년건축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우선 배고파서 여유가 없고, 협회에 본 받을만한 대상이 없고, 선배건축사들의 불행한 전철을 되밟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이 그 원인일 것이다, 협회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축사를 양성해야 하고, 개업보다는 기존사무실내에서 등록을 독려할 필요가 있고, 사무소의 실장형 건축사들도 협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 건축사들의 협회가입을 도모하고 그들의 의견을 협회 곳곳에서 귀 기울이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의 운영이 되고, 선배 건축사분들의 고귀한 조언을 들으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축사로서의 행복을 모두 함께 느낄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도래하기를 기원한다.

좌장 : 모든 것을 한번에 담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협회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오늘의 토론회는 생각보다 상당한 관심의 열기로 차있고, 진행하는 동안 참석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연락도 많이 받고 있다. 이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는 협회가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내실을 다질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건축계의 중심적인 역할로 우뚝 일어서서, 건교부의 눈치 보지 않고, 협회가 자발적인 정책대안을 내서 건교부가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협회가 스스로 일어서서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 제2부 : 자유토론 [16:00 - 17:15]

진행 : 강석후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건축사사무소 공연

임두기 | 법제위원회 위원 : 다공종합 건축사사무소

진행자 [임두기 건축사] :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협회 뒷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협회가 해야 하는데, 협회는 무얼 하느냐? 그런데 저는 '우리가 협회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작년에 열린 행정의 일환으로, 11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법제도개선기획단(위원9명, 기획단장: 이종정 건축사 | 주호암 종합건축사사무소)'을 만들었다. 기획단은 두 달이라는 한정된 기간 속에서 공식적으로 16회 이상(비공식적으로는 25회 이상), 1회에 보통 6~7시간씩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면서 폭넓고 다양한 안건을 다루었다. 그리고 1995년에 발간된 '건축개혁안(새건설)'의 A부터 Z까지를 이미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분량도 2배이다.)을 토대로 50여개 항목으로 재정리한 것이 '건축개혁2004'이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 협회가 그동안 많이 연구하고, 자료축적도 많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나, 그동안 협회가 실천은 하지 않고, 자료만 누적만 시켜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작년 이세훈 회장 출범당시 각 위원회의 위원들을 공개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1년 정도 위원회 활동을 겪은 젊은 건축사들이 '못하겠다, 안하겠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높았다. 젊은 건축사들의 불만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논쟁도 하고, 서로의 비슷한 심정으로 유대관계를 느끼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도하고 모임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겨난 젊은 건축사들의 모임은 그 활동을 협회조직 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할 것인가? 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은 '대한건축사협회 내에서 협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것의 출발이 '토론회'의 개최였으나, 이의 주최, 주관에 대해서는 총회가 끝난 지 두 달이 되었는데도, 이제 이사회 구성되고, 각 위원회는 아직도 구성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 통합토론회'한다고, 공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협회의 예산을 받고, 대한건축사협회장 남인의 홍보를 만들고, 배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또 협회 자체 내에서도 협회가 토론회를 주최, 주관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음도 이해하였다. 이렇게 토론회장소를 확보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협회의 조직과 정관을 바꿔야 하겠지만 '건축개혁2004'의 50여개 항목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1년에 1,2개씩 항목을 이행하든지, 이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면, 아마 2~3년이면 대한건축사협회를 말 그대로 개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취지에서 '토론회준비위원회'가 '토론회'를 추진하여 왔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자부한다.

이유림 건축사 [여성분과위원회 위원 : 건축사사무소 발해] : 매우 좋은 의견들이다.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연 2회 내지 4회, 8회 등으로 지속성을 갖자. '설계, 감리비를 제대로 받자.'는 운동이 있었는데 지속적이지 못했다. 절차와 순서를 정하여 이행하자. 여성건축위원회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여성 건축사들의 입지를 배려해 달라. 건축사 업무는 소규모, 개인사업도 가능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협회 회비를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 회비가 높아도 그 역할만 충분히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개별적 부담보다는 열배 백배로 단체행위로서의 효율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김영수 건축사 [전임회장 : 주.건축국 종합건축사사무소] : 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으로서는 다소 OVER되는 논조들이 있으나, 단점보다는 모두 좋다고 본다. 전문화, 대형화, 국제화에 대비해야 된다. 위원회 연합, 위원회 위원장이 이사가 되어야 한다. 본연의 역할을 하라.

과거 회장 재직 시 연구소를 만든 적이 있다. 교육연구회 팀도 만들었고, 정보센터도 있었으나 전략, 전술이 부족했다. 건축사 업무에 대한 협회의 책임이다.

토론 내용을 보면 비관적이지 않느냐? 와 전혀 막힘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자존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위상을 생각하라. 청년화, 지방화, 대중화는 당연하며, 설익은 발언으로 자만심을 갖지 말라. 연구소, 정보센터 등은 과거 '건미준'이라는 그룹의 활동으로 건축사 년 배출인원 1,000명으로 결정 시 김영삼 정부와의 약속이었다. 비판만 하지 말고, 협회 중심으로 참여하자.

노영환 건축사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 주. 위아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영수 고문의 당시 계획은 집단이기주의로 실행 못했다. 직업적 프라이드는 존경받는 것이며 최소한 배는 굶지 않는 것이나 그 가치를 못 찾는다. 장애물이 크다. 장애물에 대항하느냐? 협회는 외향적이어야 하는

데 상대는 누구냐? 대항에 유리한 조직 구성이 되어야 하나 대부분 내부지향적이다.

위원회의 목표와 주제가 빈약하다. 위원회 구성을 공개로 하든 비공개로 하든 경륜을 우선시해야 한다.

손창수 건축사 [전통건축분과위원회 위원 : 건축사사무소 청림] : 좋은 건축의 전제조건은 좋은 건축주를 만나야 한다. 보수요율대로 받고 하는 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이냐? 윤리적 선명성이면 강하게 이끌어야 한다. 협회의 현상설계 건을 보면 유아무야 흐른다.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도서신고 제도, 연금제도 등이 없어졌는데, 관청은 제도였던 것 같은데, 왜? 없어졌는지 해명이 요구된다. 강력한 지도부를 원한다. 회관 건립위원회 문제 등 강력하게 이끌라.

조원용 건축사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 주.건축사사무소 한양건축] : 주수역량이 부족한 젊은 건축사들은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한건축사협회가 방어막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예를 들어 공작물 관련하여, 주차장 건축물의 설계, 감리에 건축사가 배제되고 있다. 응찰자격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입찰에 300여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전기설비업체와 협정하여 참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60여 업체로 줄어든다. 용역 수행 절차상 갑과 을이 바뀌는 현상을 놓고 있다.

WTO 문제에 대하여는 방어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함이 합당하다.

이규환 건축사 [협회발전위원회 위원 : 주.성문메타 건축사사무소] : 금번 토론회가 1회성 행사로 끝날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별도로 활동을 한다면 시각에 따라 '새건축사협회'나 다름없다. 기존의 협회 안에서 하자.

모든 문제들을 지속적인 토론으로써 풀어 나가자. 갈등적인 문제들은 자주 만나서 풀기로 하

고, 서로 이해하자.

박충명 건축사 [법제위원회 위원장 :부산 성환건축사사무소] : 나이 먹은 아나로그 세대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기분이 매우 좋고, 왜 진작 이런 행사를 아니 했느냐 되묻고 싶다. 각 위원회 활동에서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즉 소신있게 활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사란 직업과 협회의 역사가) 엄청난 세월임에도 건축사란 국민적 인식이 아직 없다.

부산에서는 건축사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그리기대회 행사를 했다. 예상외로 약 2,000작 정도가 출품되어 모두 다 전시한 경우가 있다.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서 대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듯 건축사도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세훈 건축사 [현 분협 회장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세하] : 이번 토론회는 저희 분회에서 했어야 될 일인데, '준비위원회'가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부산, 경주, 강원 등 각지에서 다 온 것 같다. 분회에서 주최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약속한다. 주제를 아주 좁혀서 심도 있게, 분기별로 좋고 혹은 격월, 매월, 매주도 좋고, 여러분들의 열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이런 정열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다. 아직은 나도 오늘 처음이라, 아시다시피 조직이 있기 때문에, 또 이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다. 하여튼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여러분의 아주 좋은 생각이 우리 건축계에, 협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동안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력한 토론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좌장, 그리고 토론자 /발표자들에게 다같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남의집살이 관계로 토론회 장소 및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한 사정도 이렇게 있다. 조금 참고 견디면서, 협회에 애정을 가지기 바란다.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맙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종합 정리 [17:15 - 17:30]

조충기 건축사 [좌장 : 건축사사무소 간향] :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참석과 충고와 지적들은 우리 준비위원들 뿐만 아니라 협회를 밝게하는 디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냉정히 되돌아 볼 때 우리 준비위원 스스로가 반성하고 더 깊고 더 넓은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분명 지적한다.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각과 평가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오늘의 토론회에 대한 내용은 요약 정리하여 우리 대한 건축사협회의 정책 대안으로 건의하겠다.

그리고 토론준비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의 협회는 회장이 협회를 위하여 발 벗고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그리고 누가 회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우리협회의 협회의 조직 및 기구의 문제점과 협회의 이사회를 포함 하는 위원회 활동의 문제점, 그리고 대의원의 역할론이 포함되는 올바른 협회상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대안제시를 경주하겠다. 또한 우리 협회의 '건축연구소' 및 '건축사 등록원'의 설치와 '건축 강좌'의 개최, 그리고 '건축개혁2004'의 실천방향에 대하여 계속 다룰 예정이다. 다음의 토론회는 '협회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

□ 폐회선언 [17:30]

강석후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건축사사무소 공연

토론회 총평

- 1) 결론 및 건의사항
- 공청회가 되든, 좌담회가 되든 토론평의회 의 계속적, 정례화가 필요하다.

- 주제의 다양화가 전제되며, 경우에 따라 각 위원회 별로 추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 각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체 위원회의 모임으로서 워크샵 등의 행사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 위원장들의 정례모임 등 수시로 위원회 간의 활동 상황의 상호교류 등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 위원회의 위원의 선임과정 절차를 불구하고, 일단 위원에 임명되면 강제성이 부여되더라도 형식적 참여가 아닌 희생과 봉사로서 적극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기타 : 토론회에 대한 '토론준비위원회' 자체평가

- 주최, 주관 등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협회 행사로서 신뢰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 주제 발표자의 숫자가 많으면 다소 산만해질 수도 있으므로, 적정하게 조정하여 발표자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 주제에 대한 논점의 압축이 필요하며, 논지의 흐름을 달리할 수 있는 논외의 사항들은 다른 기회와 경로를 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늦은 감은 있지만 위원회 소속의 젊은 건축사들 중심의 자발적인 추진에 의한 행사로서 향후 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협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협회전임 회장, 현 회장 및 집행부를 비롯한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으로 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협회에 대한 다양한 관심에 지극히 고무적인 행사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금번과 같은 행사를 장차 대외적 활동으로 발전시켜 협회와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와 대 국민 홍보역할로서 발전 시킴도 바람직할 것이다. ㉮